

(佛美術協會)에서 佛
 語도 모르는 무명의 金
 昌洛씨가 연거푸 銀
 金質을 획득한 예는 우
 리나라에서 거의 볼가
 능하다고 판단한다。
 抽象畫家인 南씨는 西
 洋畫부분에 具象과 非
 具象으로 분리 심사해
 야한다고 주장하던 서남
 들이 스스로를 『韓國의
 실정』을 모르는 사람』
 이라고 하지만 그러기
 때문에 『작품 자체만을 조
 박하게 볼수있다』고 고
 해명한다。 올해의 『슬픈
 불상사』에도 불구하고
 그러나 그는 위촉을 받
 는다면 『우리의 젊고 유
 능한 畫家를 키우기 위
 해 앞으로 國展審査
 에 참가할것』이라고 밝
 혔다。